

KIA '베스트 라인업' 꾸러질까?

프로야구 PS 내달 8일 개막
부상선수 복귀盼
대미 장식도 기대

'가을 대반전'을 위한 KIA의 베스트 라인업이 꾸러질까?

201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내달 8일 막이 오른다. 사실상 2위 싸움에서 밀려난 KIA는 6월 SK와의 페넌트레이스 최종전을 치른 뒤 8월 당장 포스트시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포스트시즌 일정이 발표되면서 부상병동으로 전락한 KIA가 베스트 라인업으로 2011시즌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지가 팬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KIA는 올 시즌 김선빈·이범호·최희섭·김상현 등 팀의 2~5번 타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을 만큼 시즌 내내 전력 누수에 시달렸다.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라인업에 복귀하지 못한 부상병이 있다.

3번 타자 이범호와 4번 타자 최희섭 그리고 2009년 우승을 이끌었던 안방마님 김상현도 어깨 수술로 힘든 재활길에 올랐다.

허벅지 근육과열로 재활을 했던 이범호는 지난 8일 급히 1군에 복귀했지만 네 경기에서 4타석에 들어서고 고의 사구로 두 차례 출루 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4일 오른쪽 무릎 뒤쪽 근육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26일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포스트 시즌을 위한 집중치료를 받기 위해서다.

큰 부상이 아니라 타석에서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허벅지 근육과열 부상을 당했던 만큼 3루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번 타자로 1루를 지켜줄 최희섭도 재활 중이다. 최희섭은 올 시즌 허리 통증으로 1·



KIA 타이거즈
베스트 라인업

2군을 오가며 4번 타자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실전감각이 떨어져 있는 만큼 단기간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타선의 두 핵심 선수의 행보에 따라서 라인업 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시즌 내내 팬들이 기대했던 '전설의 라인업'은 안갯속이다.

KIA가 꾸릴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은 예이스 윤석민을 필두로 포수 차일목, 1루수 최희섭, 2루수 안치홍, 3루수 이범호, 유격수

김선빈, 좌익수 김상현, 중견수 이윤규, 우익수 이종범(김원섭), 지명타자 나지완이다.

올 시즌 정상가동되지 못했지만 이범호·최희섭·김상현·나지완으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상대팀 마운드를 압도할 만하다. 이범호가 3루수 역할까지 겸해준다면 최상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

나지완의 좌익수 출전과 김상현의 3루수 대비는 타선의 파괴력을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구성이다.

다행히 외야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비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던 김원섭이 29일 SK와의 2군 최종전에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서 4타수 3안타 2득점을 기록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다.

관客的 이종범도 29일 두산과의 잠실 경기에 출전하는 대신 무등경기장에서 타격감 조절에 나서며 힘을 비축했다.

포스트시즌의 키를 쥐고 있는 이범호가 30일 치료를 마치고 일본에서 귀국하는 대로 KIA 라인업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8> 2004년 KIA 김성한 감독 교체

2004시즌 KIA 타이거즈의 연말 남회식에서 김성한 사장은 상투적인 덕담이 아니라 구단 최고 책임자로서 프런트·코칭 스태프·선수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 직격탄은 "올 시즌 우리는 뚜렷한 팀 컬러를 보여주지 못한 맹물 야구를 했습니다"였다.

2004시즌의 KIA는 이종범·박재홍·장성호·홍세완·김종국·김상현·손지환·이재주 등의 화려한 타선을 갖추었다. 거기다 FA 최대어인 '마포' 마해영을 4년간 28억에 영입한데다, 또 한 명

마저 손바닥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부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다.

후반에 또다시 5연패를 당하던 다음 날인 7월26일자로 구단은 김성한 감독을 총감독으로, 감독 대행으로 유남호 수석코치를 임명하며 분위기 쇄신을 기했다.

이후 KIA의 감독교체 시스템은 이러한 오토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김성한 감독-유남호 수석코치 대행 후 감독 취임, 유남호 감독-서정환 수석코치 대행 후 감독 취임 그리고 서정환 감독은 구원군으로 투입

선수는 '드림팀' 플레이는 '맹물 야구'

시즌 중 사령탑 교체 극약처방도 허사

의 거로 삼재학을 박진철과 황윤성을 내주고 확보했다. 한마디로 KIA 타선의 위용은 '드림팀' 그 자체였다.

그러나 마운드에서 리오스가 유일하게 17승으로 근계일화의 활약을 보여주었을 뿐, 마봉·강철민·김진우·유동훈·이강철 등이 모두 6~8승 정도의 승을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고, 신용운의 마무리 위력도 상대를 압도할 정도가 아니었다.

KIA는 시범경기에서 10승1무2패(0.833)의 발군의 성적을 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KIA는 시즌 초반 5연패를 당하며 삐걱하였고, 예상 밖의 결과가 당황한 벤치는 시즌 초반임에도 매 경기를 한국시리즈 치르듯 한 투수 운용으로 무리수를 두었다. 그 강박 관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5월엔 극약 처방으로 효과를 보는 듯 2위까지 도약했지만 우려했던 그 후유증은 곧 나타났다. 임준혁이 팔꿈치, 이대진이 어깨, 조규제가 허벅지, 홍세완이 팔꿈치, 신용운이 팔꿈치, 최상덕이 척추, 마봉이 어깨 부상 그리고 박재홍

된 조병현 코치에게 감독 자리를 내줬다.

KIA는 감독 교체 후 우연인지 9월에 15승1무5패(0.750)의 성적으로 대반전에 성공, 4위로 마감하며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그러나 '포스트시즌 징크스'는 또다시 '호랑이'를 '고양이'로 만들어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만 했다.

우여 곡절 끝에 2004시즌 준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한 KIA는 3위 두산과 치른 1차전에서 보중수포 리오스가 3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7실점으로 부도를 내며 8-11로 대패했다. 2차전서도 선발 김진우의 호투를 최향남과 이강철이 지켜주지 못하고 2-8로 역전패하며 2전 전패로 고배를 들고 말았다.

KIA 타이거즈의 2004시즌은 '부석무미'의 '맹물' 되어 역사의 강으로 흘러갔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회회장>

랭킹 50위 추락 우즈 PGA '가을시리즈' 출전

'2류(B급) 선수들의 잔치로 통했던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가을 시리즈' 대회가 올해는 거물급 선수들의 출전으로 세계 골프팬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열리는 올해 PGA 투어 가을 시리즈 대회는 29일(이하 현지시간) 개막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 오픈을 시작으로 칠드런 미러를 네트워크 호스피탈 클래식(10월20~23일)까지 모두 4개가 예정돼 있다.

성적이 부진해 플레이오프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다음해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을 시리즈' 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올해는 가을 시리즈 두 번째 대회인 프라이스닷컴 오픈(10월 6~9일)에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등 유명 선수들이 출전한다. 우즈는 2년 가까이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랭킹은 50위, PGA 투어 상급랭킹은 115위까지 떨어졌다.

최경주 산뜻한 출발

신한동해오픈 1R ... 1언더 선두에 2타차 8위



최경주(41·SK텔레콤)가 4개월 만에 출전한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순조롭게 출발했다.

최경주는 29일 인천 송도의 짝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380야드)에서 열린 제27회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1언더파 71타를 찍어냈다.

오전에 경기를 시작한 최경주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베테랑 선수다운 노련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3번홀(파5)에서 2.5m, 4번홀(파4)에서 3.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단숨에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10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추가한 최경주는 좁고 굴곡이 심한 그린에 있는 13번홀(파3)에서 3퍼트를 해 1라운드 첫 보기를 기록했다. 18번홀(파5)에서는 세 번째 샷을 그린 옆 벙커에 빠뜨리고 1m짜리 퍼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다시 한 타를 잃고 경기를 마쳤다.

하지만 14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해저드 지역에 빠뜨리고도 노련한 어프로치샷과 퍼트로 포 세이브를 하는 등 관客的의 샷을 보여줬다.

최경주는 "코스 가 져는 바람에 볼에 진흙이 묻어 경기하기가 힘들었다"며 "오늘은 이번과만 치자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좋은 스코어가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등기 사회인 야구 3라운드 2일 용산 A구장에서 열린다

지왕리그 16강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3주차 경기가 열린다.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3라운드 4경기가 2일 오전 10시 북구 용전동 용산 A구장에서 진행된다.

오전 10시 천왕리그 8강 마지막 티켓을 두고 부여제넬과 디스커스가 대결을 벌인다. 2경기

부터는 지왕리그의 16강전으로 전개된다.

오후 12시 레인보우와 브러더스가 대결을 벌이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제 3경기는 광호크스와 전남대 OB의 대결로 펼쳐진다. 오후 4시에는 대한 슬러거스와 다크 클라우드가 3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한편 천왕리그 16강 대결이 벌어진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는 맥스나인, 베프스, 페가수스, 장성포비스가 승리를 거두고 8강 티켓을 획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리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펑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역서액 무료증정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소형 25만원 → 13만원
- ▶중형 30만원 → 18만원
- ▶대형 35만원 → 23만원
- ▶RV 35만원 → 23만원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 자동차터 흥남시거리(20분진)